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문은미*

1. 머리말

이전까지 시편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시들을 특별한 순서 없이 모아 놓은 시 모음집처럼 여겨졌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의도적 배열로 그 구조와 메시지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는 하나의 책으로 보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 전체론적 관점은 주위의 시들과의 관련성과 함께 그 시가 속한 그룹 안에서 또는 시편 전체의 틀 안에서 갖는 시의 위치가 그 시의 내용 자체의 의미를 뛰어 넘는 메시지와 기능을 제시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편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연구는 각 시의 저자나 시가 쓰인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종전과는 달리, 시편의 전체적인 구성, 내적 통일성, 편집자의 의도, 시편 전체를 일괄하는 메시지, 각 시들의 관련성과 작은 시 모음집들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하나의 시가 각 권에서 또는 시편 전체에서 갖는 위치의 중요성과 그 기능 등에 관심을 모은다. 이 소고는 이러한 전체론적 관점으로 시편 제4권의 시들을 읽어보려는 것이다.)

*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박사, 구약학

1) 국내 학자들 중 시편 제4권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관점의 연구는 박경철의 “한 권으로 읽는 시편”과 김형준의 “시편 제4권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을 참고하라. 특히 자신의 학위 논문 중 일부를 소개한 김형준은 시편을 하나의 책으로 보고 시편을 상호관련성 속에서 읽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므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편 4권 내의 시들의 상호관련을 연구했으며 시편 4권의 시들은 포로기나 포로 후기 시대의 신학적 사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2. 시편 속에서의 시편 제4권의 위치

전체론적 관점으로 시편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편 1-2편을 서론, 시편 146-150편을 결론으로 간주한다. 서론과 결론 사이의 본론 부분은 어떤 하나의 진행을 나타내는데, 윌슨(Gerald H. Wilson)은 이를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과 일치시킨다. 그는 시편의 각 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나타나는 제왕시를 통해 시편의 다섯 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 시기, 포로기, 포로 후기와 관련짓는다. 1-3권은 다윗 왕조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4-5권은 왕이나 정치적 주체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다룬다고 본다.²⁾ 또한 윌슨은 시편 89편에서 제기하는 다윗 언약의 실패라는 문제의 대담으로 여호와만 홀로 왕이심에 초점을 맞추는 시편 4권(90-106편)이 5권으로 구성된 전체 시편의 중심(editorial center)이라고 주장한다.³⁾ 윌슨을 따라 맥칸(J. Clinton McCann) 역시 시편 4-5권은 시편 3권의 “포로 됨의 신학적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⁴⁾ 이 소고에서는 이와 같은 무게를 갖는 시편 4권의 시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며, 그들의 역동적 관련성 속에서 짜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학적 문제에 어떻게

말한다. 김형준, “시편 제4권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7 (2001), 5-18;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시편,” 김영일 외 17인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 한들 출판사, 2006) 11-57.

2) Gerald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1985), 199-228.

3) Ibid., 215.

4) J. C.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L. E. Keck, et al., eds., *1 & 2 Maccabees; Introduction to Hebrew Poetry; Job; Psalms*,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659-664. 시편을 전체론적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은 대부분 시편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1-3권과 4-5권으로 크게 나누는 데 동의한다. Nancy L. deClaisse-Walford,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ter*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79-80.

대답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편 4권을 이해하기 위해 3가지 내용 즉, (1) 포로기 상황, (2) 여호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이라는 시편 4권의 핵심 주제와 그 발전, (3) 포로 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시편 4권의 시들을 4부분으로 나누어, 시편 90-92편에서는 포로기 상황과 인생의 덧없음, 시편 93-100편에서는 여호와의 왕 되심, 시편 101-102편에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기대, 시편 103-107편에서는 포로 귀환과 그 의미(시편 103-104편), 언약 관계에 근거한 이스라엘 역사의 재조명(시편 105-107편)을 다루려고 한다.

3. 시편 90-92편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서론으로 4권에서 발전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4권의 시들을 포로기 상황 아래 읽도록 그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제목에서 모세의 기도라고 밝히지만, 시편 90편의 위치는 그 시기가 포로기라고 제시한다. 시편 3권의 마지막 시인 시편 89편은 애가 5:16-22와 병행하는 46절 이하의 고통스런 외침과 함께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3권을 결론짓는다. 시편 89편은 바벨론 포로를 선언하는 것이다. 시편 90편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시편 89편 바로 뒤에 나오는 시편 90편의 배열은 오히려 이 시를 모세가 살았던 가나안 땅도, 성전도, 왕정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상응하는 포로기를 배경으로 읽으라는 하나의 편집상의 표시(sign)로 보게 한다.⁵⁾

시편 90-92편은 단어의 표현이나 주제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며, 세 편 모두 시편 3권의 포로 됨의 위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⁶⁾

5) J. C. McCann,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1040-1041.

3.1. 시편 90편: 인생의 덧없음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주요 주제인 여호와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에 대비되는 인생의 덧없음을 그린다. 특히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시편 90편은 삶의 시간 길이에 대한 주제 발전의 기초를 제공한다. 1-3절은 창조주인 여호와와의 영원성과 피조물인 인간의 죽을 운명(흠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 mortality)을 대조한다. 4-6절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와의 초월성과 인생의 찰나성(transience)을 대비하며, 7-9절은 인간의 죄악(sinfulness)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린다. 10절은 이러한 인간 조건을 요약한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mortality)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the life under Yahweh’s wrath against sinfulness)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transience).” 11-12절은 그러한 조건 아래 있는 삶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한다.

13절 이하에서는 시인의 관점이 변화된다. 그는 더 이상 인간 조건에 집중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 그들의 덧없는 삶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공홀히 여기시고 종들을 만족시키시며(13, 14a 절), 주의 진노 아래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그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며(7-10절과 14b-15절), 죽을 운명을 가진 유한한 그들의 삶을 자손들을 통해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한다(16절).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오직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다(14절).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 조건 아래에서 지혜의 마음은 여호와가 돌아오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행사

6) 시편 90-92편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거처”(90:1; 91:9, 92:1), “아침”과 “저녁”(90:4-6; 91:5-6; 92:2), “피다” 또는 “홍왕하다”(90:6; 92:7), “지존자”(91:1, 9; 92:1), “이름”(91:14; 92:1), “아침에 주의 인자”(90:14; 92:2), “진실함” 또는 “성실함”(91:4; 92:2), “기쁘게 하다”(90:14, 15; 92:4), “주의 행사”(90:16; 92:4). 또한 시편 90-92편에서 같은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90:2; 91:1, 9; 92:8), 여호와 안에서 안전(90:1; 91:1-4, 9-12, 14-16; 92:15), 삶의 시간 길이(time span of life; 90:10; 91:16; 92:14) 등이다.

를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다린다. 시편 90편에서 다루어지는 이러한 주제들은 시편 4권의 시들에서 발전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1절과 13절의 질문들이 다윗 왕조의 멸망의 애가에서 여호와와 진노와 인생의 덧없음을 호소하는 시편 89:46-49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여호와와 진노로 인한 다윗 왕조의 멸망과 포로 됨과 인생의 덧없음의 주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시편 89편에 이어 시편 4권의 시들에서 발전되는 것은 시편 4권의 전반적인 이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3.2. 시편 91편: 위협적인 포로기 상황

시편 91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고백(1-13절)과 시인의 신뢰에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응답(14-16절)으로 구성된다. 1-13절에는 모든 종류의 위험들이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다양한 비유들로 표현되며 이들이 서로 대조된다. 위험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3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살”(5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밤을 때 닥쳐오는 재앙”(6절), “화”와 “재앙”(10절),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13절)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온갖 종류의 무섭고 두려운 위험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포로기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자의 그늘”(1절), “피난처”와 “요새”(2절), “깃”, “날개”, “방패”, “손 방패”(4절), “피난처”와 “거처”(9절) 등의 비유로 나타나고 나아가 여호와와 사자가 모든 길에서 지키시며(11절)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12절)고 설명된다.

14-16절의 시인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응답은 시편 90편의 기도와도 관련된다. 시편 91:16의 시인을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은 시편 90:14, 16의 기도의 응답이며 특히

시편 91:16에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약속은 시편 90편의 인생의 덧없음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3.3. 시편 92편: 포로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와 보호하심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편 92편은 시편 90-91편과 관련된다. 시편 90:14-16에서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기도가 시편 92:4-5에서 응답됨을 보여준다. 또한 시편 91:8과 92:11은 모두 악인에 대한 보응을 다룬다. 시편 90편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돌아오 시기를 간구하는 시이고 시편 91편은 온갖 위험들로부터 주님이 보호 하실 것을 신뢰하는 시라면 시편 92편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⁷⁾

테이트(Marvin E. Tate)에 따르면, 시편 92편은 8절을 축으로 1-3절 은 12-15절과 상응하고, 4-6절은 10-11절과 상응하며, 7절과 9절이 상응 하는 교차적 구조(chiastic structure)를 갖는다.⁸⁾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8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와 영원한 절대 주권을 선언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이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와 절대 주권을 실현 함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3절), 주의 크신 행사 와 깊은 생각(5절), 정직하심과 불의가 없으심(15절)을 찬양한다. 시 인에 의하면, 여호와는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것에 불의가 없으시다. 지금 나타난 현상은 반대로 보이지만, 결국 악인은 멸망을 당할 것이며 (7, 9절), 의인은 여호와와 보호 아래 안전하고 흥왕하여 여호와와 집에 심긴 나무처럼 늙어도 열매를 맺고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라 고 확신한다(12-15절). 한편, 여기서도 삶의 길이에 대한 주제의 발전을

7) A. F. Kirkpatrick,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 553.

8) Marvin E. Tate, *Psalms 51-100*, David A. Hubbard and Glenn W. Barker, eds., WBC 20 (Dallas: Word Books, 1990), 464.

볼 수 있다. 시편 90편에서 삶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10절), 이 애가의 응답으로 시편 91편에서는 장수하여 만족하게 하며(16절) 시편 92편에서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한다. 인생의 덧없음의 주제는 장수함으로 그리고 늙어도 생명력이 충만한 삶으로 발전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주제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여호와와의 영원하신 절대 주권 즉, 여호와와의 왕 되심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시편 92편의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와의 영원하신 절대 주권과 의인과 악인을 다루심에 공의로우심은 다음에 나오는 일련의 여호와 왕권시(Yahweh-kingship psalm)들에서 계속 발전된다.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언급하는 시편 90-92편은 시편 4권의 주요 주제인 여호와와의 영원하신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공하면서 시편 93-100편을 포로기 상황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볼 것을 제시한다.

4. 시편 93-100편

시편 93편과 95-100편은 여호와 왕권시로 알려져 있다. 시편 94편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90-92편 특히 92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여호와 왕권시와 달리, 시편 94편은 시편 90-92편처럼 지혜의 모티브를 갖는다.⁹⁾ 그리고 시편 94:8,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는 시편 92:6,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를 반향한다. 또한 시편 92, 94편에는 같은 단어들 이 나타난다.¹⁰⁾ 특히, 두 시는

9) 시편 94:12에는 복 있는 자와 여호와의 법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시편 94:8-15에는 지혜 문학의 특징적인 언어들 이 나타난다. “우준한 자들”, “무지한 자들”, “지혜”(8절), “지식”(10절), “징벌”, “교훈”(10, 12절), “허무함”, “알다”(11절), “악인”(13절), “마음”, “정직”(15절).

10) 인자(92:2; 94:18), 생각(92:5; 94:11), 악인(92:7; 94:3, 13), 죄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압제자를 똑같은 3개의 단어 즉, 악인(רשעים), 죄악을 행하는 자(פועלי און), 행악자(מרעים)로 묘사한다. 더 나아가 이 두 시는 악인이 지금은 흥왕하나 멸망할 것을 강조한다(시 92:7, 9; 94:23). 두 시의 이러한 관련들은 두 시가 모두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시편 94:5, 7, 10, 14을 보면 압제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시편 94편은 92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93편과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편 93편과 94편에는 5개의 어근이 같은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¹¹⁾

뿐만 아니라 시편 94:1-2에서는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로 부른다. 복수와 심판은 왕의 중요한 일들이다. 시편 94:15a는 여호와의 심판이 의로움을 암시한다. 이 주제는 여호와 왕권시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시 96:13; 97:8; 98:9; 99:9). 시편 94편은 애가로 여호와 왕권시와 장르가 다르고¹²⁾ 여호와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왕권시와 관련을 갖는다.

(92:7, 9; 94:4, 16), 보다(92:11; 94:9), 눈(92:11; 94:9), 행악자(92:11; 94:16), 듣다(92:11; 94:9), 귀(92:11; 94:9), 의인(92:12; 94:21), 우리 하나님(92:13; 94:23), 정직(92:15; 94:15), 바위 또는 반석(92:15; 94:22).

11) 시편 93편과 94편에서 어근이 같은 단어는 다음과 같다. מַבְרִיחַ는 93:3에서 “물결”로 94:5에서는 “파쇄”로 나타나며, נָאָה는 93:1에서 “권위”로 94:2에서는 “교만한 자”로 표현되고, נָשָׂא는 93:3에서 “높이다.”로 94:2에서는 “일어나다.”로 쓰였으며, נָשַׁב는 93:2에서 “주의 보좌”로 94:20에서는 “악한 재판장”(a throne of destruction)으로 나타나고, מְרִיט는 93:1에서 “요동하다”로 94:18에서는 “말이 미끄러지다.”로 표현되었다.

12) 자세한 것은 David M. Howard,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J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105-109, 119-131, 174를 보라.

4.1. 시편 94편: 여호와 왕권시의 포로기 배경

시편 94편이 전환적 위치를 갖는다면, 왜 애가인 시편 94편이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일련의 찬양시 그룹 안에 들어갔는가? 왜 시편 93편과 94편의 위치가 바뀌었는가? 윌슨은 시편 93편과 94편의 위치가 바뀌는 이런 맞물리는 구조(interlocking mechanism)는 여호와 왕권시와 시편 90-92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¹³⁾ 정리하면,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는 여호와의 왕되심이 포로 상황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편 94편의 기능은 여호와 왕권시에 포로 상황이라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왕이라는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쟁에서 한 나라의 패배는 그 나라의 신의 패배라고 믿었던 고대 사회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주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포로 상황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왕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된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의 위대함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왕권은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있다(시 97:9; 99:2).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은 영원하다(시 93:2). 그의 왕권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의 선포는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여호와의 왕권은 그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 위에 여호와가 왕이심을 선포한다.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왕권이 그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호와 왕권시는 창조, 이스라엘의 구원,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시편 94편은

13) G. H. Wilson,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75-76.

여호와 왕권시에서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도약판의 역할을 감당한다. 다음은 여호와 왕권시에서 위의 세 가지 주제 즉, 창조, 구원, 심판을 살펴보려고 한다.

4.2. 여호와의 왕권과 창조

여호와의 왕권은 시편 93, 95, 96편에서 창조와 관련된다. 시편 93편에서는 여호와가 권위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므로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1절과 2절의 “견고히 서다.”는 하나님의 왕권과 세상의 견고함의 관계를 보여준다. 만일 여호와께서 영원부터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면 세계는 “큰 물”에 잠겨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큰 물”을 복종시키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2-4절). 그의 왕권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의 존재와 유지를 보장하신다.

시편 95편은 여호와의 왕권과 그의 창조 행위를 병행하여 선포한다. 그는 땅의 깊은 곳부터 산의 높은 곳까지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창조자요 왕이시다(4절). 그의 왕되심은 그의 창조에 근거한다. 시편 96:10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시들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왕권은 창조에 근거하며 세계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시다.

4.3. 여호와의 왕권과 구원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에, 한 나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그 나라의 신의 패배라고 믿는 고대 사회 속에서 여호와의 왕권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선포는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됨이 바벨론 신들에 의한 여호와의 패배가 아니고 그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임을 드러낼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호와 왕권 시에서 구원의 주제는 중심 주제로 나타난다.

시편 95편은 우주 창조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 크신 왕으로 선포한다(3절). 그 여호와가 “우리 구원의 반석”(1절), “우리들 지으신 분”(6절), “우리의 하나님”(7절)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출애굽의 구원을 근거로 한다(8-11절). 여호와의 창조(5절)와 구원(6절)을 묘사하는 데 같은 동사 נָסַח 가 사용되었다. 시편 95편은 창조와 구원이 밀접히 관련되면서 7절 이하에서부터 구원의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시편 96:1-5은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하려고 “온 땅”(1절), “백성들”, “만민들”(3절)을 부른다. 구원을 다루는 시편 98:1-3은 출애굽뿐 아니라 이사야 52:7-10의 포로 귀환의 예언을 생각나게 한다. 시편 98편은 구원에 대한 우주적 관점을 제시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 앞에서 그의 구원을 명백히 나타내시므로(2절)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한다(3b절). 나아가 그의 구원은 그의 언약에 근거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1-3절). 여호와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만방에 입증되고 선포된다.

4.4. 여호와의 왕권과 심판

심판은 왕의 통치에서 중요한 임무들 중 하나이다. 시편 96:10에서는 여호와의 통치는 세계를 창조하고 견고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시편 96:11-13은 여호와가 세

계를 공의로, 만민을 진실하게 심판하시므로 여호와를 즐거이 노래하라고 온 우주 만물, 하늘, 땅, 바다, 밭, 숲의 모든 나무들을 부른다. 여호와 의 우주적 통치로 세계는 견고히 유지되며 만민 위에는 정의가 세워진다. 즉, 그의 통치는 우주의 질서를 보장한다. 시편 97편은 여호와 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다고 말한다(1-2절).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사방의 대적을 심판하므로(3절, cf. 시 9:4, 7) 만민 앞에 그의 의를 드러내고(6절) 이에 시온의 백성이 즐거워한다(8절). 여호와는 의로운 그의 백성을 악인에게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10-12절).

여호와 의 통치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시편 98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1-3절)과 세상의 심판(9절)을 다룬 구절 사이에 여호와 를 찬양하라고 만민을 부르는 내용이 나온다(4-8절). 이러한 구조는 시편 97편에서와 같이 여호와 가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그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를 온 땅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를 찬양함을 나타낸다. 여호와 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 편벽됨이 없이(cf. 시 82:2)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함에서 드러난다(시 9:8; 96:10, 13; 98:9). 시편 99편에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을 행하셨다고 선포한다(4절).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여호와 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한다(8절). 정의를 사랑하시고 만민을 공평으로 판단하시는 여호와 는 심판 중에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4.5. 시편 100편: 여호와 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강조함

시편 100편은 여호와 왕권시 그룹을 종결한다. 1-2절에서는 여호와 를 찬양하고 섬기라고 온 땅을 부른다. 이는 여호와 왕권시 의 우주적 관점을 보여준다. 또한 **עבד**(섬기다) 동사의 명령형으로 여호와 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3절의 ‘여호와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시의 중심 메시지는 시편 95:6-7의 중심 메시지와 일치할 보인다.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여호와 왕권시의 핵심 그룹인 시편 95-100편의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5절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때에 특별히 드러나는 특징이다(시 25:10; 89:24, 33; 98:3). 즉,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에서 여호와 왕권시 그룹의 결말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예견하게 한다.

5. 시편 101-102편

5.1. 시편 101편: 구원을 기대하는 왕의 간구

시편 101-102편은 포로 귀환을 예견한다. 시편 101편은 제왕시로 다윗의 시(דָּוִד מְזוּמָר)라는 제목을 갖는다. 6절, 8절에 근거해 볼 때, 시편 101편의 “나”는 분명히 왕의 위치에 있으며 이 시의 요점은 그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왕의 서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מָתַי תְּבוֹא אֵלַי)라는 질문에 근거하여 이 시는 왕의 애가로 볼 수 있다. 시편 90-92, 94편에 비추어 시편 4권의 배경을 포로기로 간주했을 때 시편 101편도 포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포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여호와 왕권시 그룹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종결된 것을 고려할 때, 시편 101편은 왕정의 회복 후에 그의 직무를 이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소망하는 다윗 왕의 후손의 간구로 보인다.

1절 상반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의 인자와 정의는 여호와의 통치 중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때 특별히 나타나는 여호와

의 특성이다. 인자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하실 때에(시 92:2; 98:3; 100:5), 정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시 96:13; 98:9) 나타난다. 여호와의 통치는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그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포로에서의 귀환과 왕정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한다. 그는 아직 포로로 있지만 왕정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왕정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행할 것을 서약한다. 시편 101편과 102편이 함께 나란히 병행하는 것은 시편 101편의 이러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시편 102:13-22는 분명하게 시온의 회복(13-16절)과 포로 귀환(17-22절)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5.2. 시편 102편: 포로 귀환에 대한 기대

시편 102편은 개인 애가(1-11, 23-24절)와 회중의 시온을 위한 기도(12-22, 25-28절)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애가 부분에서는 개인의 고통(3-7, 11절), 대적의 비방(8절), 여호와의 거절(9-10절)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시인은 자신의 삶의 덧없음을 탄원한다. “내 날”(נַפְשִׁי)이라는 단어가 3절과 11절에서 개인 애가의 첫 부분의 틀을 형성하고 23-24절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날을 연기(3절), 기울어지는 그림자(11절), 풀(11절)에 비유한다.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탄원은 시편 90편에서 나타난 지혜의 모티브로 여기에 다시 나타난다.

시편 102편과 90편은 공통된 주제들을 보이는데, 여호와의 영원하심(시 90:2; 102:12, 24, 26, 27), 여호와의 진노(시 90:7, 9, 11; 102:10), 여호와의 세계 창조(시 90:25; 102:25), 풀의 시듦(시 90:5-6; 102:4, 11) 등이다. 시편 4권 안에서의 위치와 시편 90편과의 연결은 시편 102편이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함을 암시한다. 크라우스(Hans-Joachim Kraus)는

시인의 탄원이 23절을 근거로 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¹⁴⁾ 그러나 애가가 시온을 위한 기도를 감싸고 있는 틀을 형성한 것을 볼 때, 이 두 부분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시인의 탄원은 포로 상황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13-17절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렘 25:11-12; 29:10) 시온의 회복을 위한 70년 기한이 가까이 옴을 의미하며 18-22절은 포로 귀환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8절의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될 백성’은 포로 귀환을 다루는 이사야 43:7, 21을, 20절의 ‘갇힌 자의 해방’은 역시 포로 귀환을 다루는 이사야 42:7을 생각나게 한다. 23절의 ‘내 날을 짧게 하심’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탄원하는 시편 89편의 마지막 내용 속에서도 나타난다(시 89:45). 이는 시인이 겪는 개인의 고통과 대적의 비방, 여호와의 거절이 포로 상황에서 오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편 102편은 여호와가 시온을 건설하시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온 나라들 위에 여호와의 왕권을 나타내게 되고, 온 나라들과 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될 것을 언급한다(15, 22절). 이 시는 여호와 왕권시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우주적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다(12, 15, 19-22절).

5.3.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 제4권에서 인생의 덧없음의 주제는 시편 90, 91, 92, 102편에서 계속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다윗 왕조의 멸망과 포로 상황을 묘사하는 시편 89:38-51에서도 인생의 짧음에 대한 탄원(47-49절)이 함께 나타남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다음의 질문이 일어난다. 왜 인생의 덧없음이 포로 상황을 묘사하는 데 나타나는가?

14) Hans-Joachim Kraus,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 tran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284.

인생의 유한함과 포로 됨은 서로 어떤 관련을 갖는가?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편 4편은 포로 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질문들의 대답은 시편 104편에서 제시되지만 인생의 덧없음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주권으로 시편 102편에서 극복된다.

시편 102편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4번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12, 24, 26, 27절), 2번은 인생의 덧없음과 대조되어 나타나고(12, 24절), 2번은 피조물의 유한성과 대조되어 나타난다(26, 27절). 시인은 11절에서 자신의 삶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풀같이 짧다고 탄원한 바로 뒤 12절에서 여호와와는 영원히 계신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23-24a절에서 주께서 자신의 날을 짧게 하셨으니 중년에 데려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 바로 다음 24b에서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다고 선언한다. 피조물의 유한성과의 비교는 26a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다고 하며, 26b-27절에서는 천지는 다 옷 같이 낡겠고 의복을 바꾸듯 주께서 바꾸시면 바뀌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말한다. 옛적에 기초를 놓으신 땅과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을 사람의 삶의 길이와 비교하면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하늘과 땅도 유한하다. 시인은 여호와만 끝이 없고 변함 없다고 노래한다. 28절에서는 이러한 주의 영원하심에 근거하여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서리라고 말한다. 주의 영원한 절대 주권은 그의 백성의 미래와 그의 나라의 영원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는다. 즉, 인생의 짧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후손을 세우심으로 극복하게 됨을 알게 된다.

시인과 시인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살아서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창조함을 받을(עָמַם נִבְרָא) 장래 세대(דֹר אַחֲרָיו), 즉, 그들의 후손(בְּנֵי-עַבְדְּךָ)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안전하게 거할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18, 28절). 여호와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이 이를 보장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여호와가 세우는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새롭게 이어질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가 다음 세대를 통한 삶의 새로워짐으로 해결되는 것은 시편 104편에서 포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된다. 시편 4권은 여호와의 영원한 왕권을 인간의 유한성의 주제를 대조하여 제시한다.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낡고 변하며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영원한 왕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포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초석을 놓는다.

6. 시편 103-106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부름이 시편 4권의 마지막 4개의 시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이 4개의 시를 시편 103편, 104편, 105-106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시편 103편과 104편은 한 쌍의 시이다. 두 시의 형식과 주제는 서로 관련된다. 형식에 있어서는 두 시 모두 시작과 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동일한 찬양의 부름을 갖는데 이는 시편 전체에서 오직 이 시들에서만 나타난다. 주제에 있어서는 두 시 모두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한다. 두 시는 여호와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보이는데, 여호와는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며(시 103:19, 22; 시 104편), 모든 피조물을 만족하게 하는 분이다(시 103:5; 104:13, 16, 28). 그러나 두 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룬다. 시편 103편은 역사 속에서, 시편 104편은 창조에서의 여호와의 왕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점에서, 이 두 시는 여호와 왕권시와 연결되며 앞의 시들의 주제를 종합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시편 103편과 104편은 시편 4권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편 89편에서 다윗 왕조의 멸망 후 시편 90편과 그 뒤에 나오는 시들은 포로 상황을 다룬다. 시편

103편은 여기에 전환점을 제시한다. 즉, 시편 103편은 포로 귀환을 다루고 시편 104편은 포로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시는 시편 4권에 대한 이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6.1. 시편 103편: 구원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왕권

시편 103편은 여호와와의 구원을 찬양한다. 애가가 찬양으로 바뀌었다. 시편 102편의 빈궁한 자의 기도와 소망이 실현되었다. 여호와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시 102:17). 포로 귀환의 정한 때가 왔다(시 102:13). 구원을 찬양하면서 시편 103편은, 시편 90편에서 포로 상황과 함께 다루었던 두 가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악됨과 인생의 덧없음의 문제와 그 해결을 다룬다.

6.1.1. 인간의 죄악됨과 여호와와의 응답(6-13절)

시편 103편의 구조는 1-5절, 6-18절, 19-22절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가 주신 은택을 찬양한다. 여호와와의 은택은 포로 귀환을 표현하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병을 고치심: 사 57:18-19; 렘 30:17; 33:6; 속량하심: 사 44:22-23, 48:20; 51:10; 52:3, 9; 만족케 하심: 렘 31:14). 시인은 최근에 여호와와의 은택을 경험한 것을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요약한다. 사실 6절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인은 출애굽을 상기한다. 특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할 때 모세에게 보이셨던 계시를 상기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시 103:8; 출 34:6). 한편, 6절은 전환 구절로, 앞부분에 나오는 시인의

최근의 경험(1-5절)과 뒷부분의 모세의 언약 갱신에 대한 것(7-8절)을 연결시킨다. 즉, 시인의 경험을 갱신된 모세의 언약의 빛에 비추어 이해할 것을 제시한다. 모세의 언약 갱신은 오직 여호와의 죄 용서함에 근거한 것과 같이, 시인의 구원 역시 죄 용서함에서 비롯됨을 말한다. 따라서 9-13절은 여호와의 헤세드에 의한 죄 용서함에 초점을 맞춘다. 여호와는 그들을 죄악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셨다고 노래한다.

6.1.2. 인생의 허무함과 여호와의 해결(14-18절)

시인은 14-18절에서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의 문제를 다룬다: 여호와는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신다(시 103:14; 90:3).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서 그 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들의 꽃과 같이(시 103:15-16; 90:5-6) 인생은 덧없으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며 그의 의로우심을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시 103:17). 짧고 덧없는 인생의 문제는 여호와가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경건한 자들의 자손들을 세우심으로 해결된다(시 103:18). 곧이어 시편 103:19-22절에서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하는데,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찬양할 뿐 아니라 시편 102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자손들을 통해 새로워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찬양한다.

시편 90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시편 103편에서 해결된다. 시편 90편에서 죄와(8절), 여호와의 진노와(7, 9, 11절), 수고와 슬픔뿐인 그들의 삶(10절)에 대한 얘기는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가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3, 10, 12절),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며(9절),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심으로(5절) 찬양으로 바뀐다. 또한 시편 90편에서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1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만족시

켜 주시도록(14절), 여호와의 행사와 영광을 그들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도록(16절) 간구하지만, 시편 103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족시키시며(5절), 긍휼히 여기시며(13절), 여호와의 의를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17절) 찬양한다. 시편 89편이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선언함에 이어 시편 90편은 포로 됨에 대한 애가라면 시편 103편은 포로 귀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편 90편과 103편은 모두 출애굽기 32-34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시편 90편이 금송아지를 만듦과 그에 따른 여호와의 진노를 기록한 출애굽기 32장과 관련된다면(시 90:13; 출 32:12), 시편 103편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출애굽기 33-34장과 연관된다. 즉, 시편 90편의 포로 됨은 언약의 깨어짐으로, 시편 103편의 포로 귀환은 언약의 갱신을 그리고 있다고 보인다.

6.2. 시편 104편: 창조에 나타난 여호와의 왕권

시편 104편은 여호와의 세계 창조와 유지에 대해 다룬다. 창세기의 기록 순서에 따르면, 시편 104편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시편 105편의 앞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시편 104편의 위치는 창세기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보다는 시편 103편과 함께 포로 됨과 그 의미를 설명하여 시편 4편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감탄과 시인 자신을 향한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시편 104편은 1-4절, 5-9절, 10-18절, 19-23절, 24-30절, 31-35절의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1-4절은 하늘의 창조를 다룬다. 여호와는 빛, 하늘, 물, 구름, 바람을 지으시되, 이 모든 것을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들은 자율적이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서는 설 수 없다.

5-9절은 땅의 창조를 그린다. 여호와와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신다. 땅을 덮어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의 경계를 정해서 땅과 바다를 분리하며 산과 골짜기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 결과 땅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한다. 땅의 질서와 안정은 생명을 위한 기반이 된다.

10-18절은 창조된 땅이 사람과 동물의 삶을 위한 터전이 된다고 말한다. 여호와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심으로 온 땅이 만족한다(13절). 나아가, 땅의 비옥함으로부터 여호와와는 사람과 동물에게 집과 음식을 공급한다(14-18절). 여호와와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상호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셨다.

19-23절은 피조물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해와 달을 창조를 다룬다. 여호와와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여 그들 모두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게 하신다.

24-30절은 여호와와의 창조의 다양함과 그 다양함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창조의 지혜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의 감탄으로 시작된다. 땅은 온갖 피조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함께 살고 있다(24절). 창조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는다. 이러한 창조의 특성은 여호와와의 지혜를 반영한다. 여호와와는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 27절의 동사 שָׁבַר 는 ‘바라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시편 119:116, 166, 145:15, 146:5, 이사야 38:18 등에서 쓰였는데 여호와가 소망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문맥에서는 ‘신뢰하다.’, ‘의존하다.’의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27절의 모든 피조물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한편, 27절, $\text{כָּל־מַחְמָה בְּכֹל־מַלְאָךְ יִשְׁבְּרוּן לַחֵם אֲכָלָם בַּעֲוֹן עַשְׂיָת}$ 의 כָּל־מַלְאָךְ 과 연결된다. 이에 대해 $\text{לְדַרְבֵּן לַיהוָה}$ 은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24절의 사고가 만물이 여호와가 양식을 주기를 바

란다는 27절로 이어지므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혜[(P)roviding food is the wisdom with which God created the world...]” 라고 말한다.¹⁵⁾ 다시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창조에서 나타난 지혜이다. 사실, 만물은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것이 여호와가 그들을 창조한 지혜이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므로 만물이 존재하고 여호와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움으로 그들은 만족한다(13, 16, 28절).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낮을 숨기고 그들의 호흡을 거두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29절).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왕이시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30절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라고 말한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퇴한다(시 102:26). 여호와가 그의 영을 보내어 옛 세대를 잇는 새 세대를 창조하므로 피조물의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는 “새롭게 함(the way of renewal)”으로 만물을 유지하신다. **חַדָּשׁוּ**의 동사적 의미는 주로 이전의 상태나 목적으로 회복되거나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¹⁶⁾ 새롭게 함의 과정-죽음과 삶-이 여호와가 만물을 유지하는 지혜요,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의 한 방법이다.

30절은 이 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시인이 창조를 노래하려고 했다면, 창세기 1-3장에 비추어 볼 때 시편 104:1-29의 내용으로

15) Adele Berlin, “The Wisdom of Creation in Psalm 104,”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Ronald L. Troxel, Kelvin G. Friebel, and Dennis R. Magary, eds., (Winona Lake, Ind.: Eisenbraus, 2005), 81.

16) **חַדָּשׁוּ**의 동사형은 대부분 구속적-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노스(North)의 주장에 베르호프(Verhoef)도 동의한다. 웨스트만(Westermann)은 선지서에서 **חַדָּשׁוּ**의 사용은 포로 시기에 제한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다루는 것에 대해 **חַדָּשׁוּ**를 사용한 것은 오직 포로 시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Pieter A. Verhoef, “**חַדָּשׁוּ**,” NIDOTTE 2:31.

충분할 것이다. 30절은 앞의 내용의 중복이 아니고 창조를 넘어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창조의 유지를 위한 새롭게 함과 그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통하여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마지막 단락을 살펴본 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단락인 31-35절에서 시인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여호와와 영광이 지속되고 여호와가 그의 행사를 기뻐하시기를 기도하며(31절), 자신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한다(33절). 32절의 지진과 화산 폭발을 수반하는 여호와의 현현은 그의 백성의 구원과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 시인은 창조를 본질적으로 선하게 보지만 여호와와 현현으로 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죄인들과 악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시를 마친다. 이 마지막 절의 시인의 간구는 질서와 조화의 우주를 인하여 앞에서 시인이 했던 찬양과 놀랍게 대조된다. 죄인들과 악인들을 소멸해 달라는 간구는 질서 정연한 세계에 무질서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다. 혼란을 일으키는 악인들의 세력은 7-9절의 땅을 덮은 대 혼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과 32절의 하나님의 현현에서 암시되는 악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를 볼 때 시편 104편은 단순히 창조에 관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호와를 바라고 의존하며 상호 의존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어 찬양을 자아냈던 이 우주에서 소멸되어야 할 존재,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는 여호와와 왕권에 도전하는 죄인과 악인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와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율권을 주장하므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와 통일성을 깨뜨리는 자들이다. 악인을 소멸하시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 우주의 질서와 조화로 인한 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기도하는 30-31절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함”의 통치 방법은 인간 역사에도 적용된다. 창조와 같이 역사 속에서도 “새롭게 함”의 목표는 부패와 타락을 제거하여 여호와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요 우주

에 질서와 조화(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 “새롭게 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련된다.

이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하였을 때 그들의 포로 됨과 포로 귀환은 새롭게 함의 과정-죽음과 삶(또는 chaos-cosmos)으로 이해할 수 있다 (cf. 겔 39:21-29).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부패했을 때 “새롭게 함”이 필요했다. 포로 됨은 죽음으로, 포로 귀환은 새 생명의 창조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유한함, 여호와의 절대 주권, 자손을 이어감의 주제들이 포로 상황과 함께 얽혀 나타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큰 위기인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 4편은 창조와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왕권을 선포한다. 특히 시편 104편은 이스라엘의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제시하여 이스라엘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시편 103편과 104편은 죄 사함을 통한 여호와의 구속과 우주 만물의 창조와 유지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며, 또 이를 통해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설명하는 점에서 시편 4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시편 103편의 구속과 시편 104편의 창조의 주제가 시편 104:35에서 모아지면서 시편 105-106편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연결된다.

6.3. 시편 105-106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이해한 후 시편 105-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다루고,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구원 역사를 다룬다.

이 시들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언약의 틀 안에서 제시되며 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חַסְדִּי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편 105편은

찬양으로의 부름(1-6절) 바로 뒤인 7-11절에서, 결론(가나안 땅을 주심, 43-45ab절)과 찬양으로의 부름(45c절) 바로 전인 42절에서 언약을 언급하므로 시편 105편의 본 내용을 언약의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26:42, 44-45을 생각나게 하는 시편 106:44-46의 언약에 대한 언급은 언약의 틀이 확장되어 시편 105편과 106편을 함께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약의 틀은 이스라엘 역사를 언약의 빛으로 읽을 것을 제시한다. 실제로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묘사한 반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을 그리고 있다. 시편 105편은 시작과 끝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음(8, 42절)을 강조하며,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는 11절의 약속이 44절의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편 106편은 여호와에 대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실하지 못한지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으며 홍해에서 거역하였고(7절), 주의 행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으며(13절), 여호와를 시험하고(14절), 호렙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19절),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으며(21절), 낙토를 떨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순종하였고(24-25절),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주를 격노케 하였으며(28-29절), 프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고(32절), 멸망시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좇지 않고 열방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우상을 섬기고 어린아이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다(34-38절).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 행동이 음탕하였으며(39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지만 저희가 피로 거역하며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43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105편과 106편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이 놀랍게 대조된다. 말하자면, 이 두 시는 언약의 틀 안에서 언약 당사자들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대조한다. 즉, 시편 105편은 언약 관계에 따라서 기사(נִסְיֵי אֱלֹהִים 2, 5절)와 이적, 표징(מוֹפְתִים 5, 27절)을 행하시므로 그의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실행하시는 여호와와의 신실하심과 그의 헤세드(חֶסֶד)를 칭송하는 반면, 시편 106편에서는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반항하여 그 의무의 실행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과 불성실함을 묘사한다. 이렇게 볼 때 시편 105편과 106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그린 것만이 아니고 두 언약 당사자들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의 빛으로 보았을 때 이 역사는 여호와와의 인자하심[חֶסֶד,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사랑의 위임(loving commitment)¹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모든 세대에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다. 시편 105편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위에서 말한 언약의 틀 안의 본문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행사는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의 헤세드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시편 106편은 여호와와의 헤세드에 감사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한다(1절).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심(8, 10[2x], 43절)을 통해 그의 헤세드를 드러낸다. 이스라엘은 모든 세대에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뜻을 돌이키셨음(43-45절)을 언급하는 시편 106편의 내용은 오히려 여호와와의 헤세드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편 105편과 106편의 여호와와의 헤세드에 대한 암시적인 강조는

17) Gordon R. Clark, *The Word Hessed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57 (Sheffield: JSOT, 1993), 131.

시편 107편에서 전면으로 드러난다.¹⁸⁾ 시편 106편의 결론에서는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언약 관계에서 실패하고 열방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서술하며, 그들을 구원하여 열방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마친다(46-47절). 시편 107편은 시편 106:46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포로 된 상황에서 돌아오게 됨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여호와와 헤세드를 생생하게 찬양한다. 또한 시편 106:1과 같이, 여호와와 헤세드에 감사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시편 107편은 마지막 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와 헤세드를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시를 마친다(43절). 시편 105-107편의 역사는 ‘죽음을 거쳐 생명으로 새롭게 된’ 포로 후기 세대에게 역사 속에 나타난 여호와와 신실하신 헤세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달아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그들의 열조들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언약 관계에 합당한 순종의 새 세대를 열어가라는 것이다.

7. 맺음말

이 소고는 전체론적 관점으로 시편 4권의 시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들의 상관성과 각 시의 위치에 따른 기능, 그리고 시편 4권의 전체적인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았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선언하는 시편 89편에 뒤이어 시편 90편은 서론으로 시편 4권의 역사적 배경이 포로기라고 말하며 앞으로 전개될 주제들을 제시한다. 시편 90-92, 94편은 포로 상황에 관련하여 인간의 유한성과 여호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여호와와 통치를 선포하는 시편 93, 95-100편은 여호와와 왕권이 창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포로 된

18) 시편 4권은 시편 106편으로 마친다. 시편 107편은 시편 5권에 속하지만 시편 106편에 이어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역사와 관련하여 시편 107편까지 여기서 다루려고 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심판하여 그의 통치를 땅 끝까지 알릴 것을 말한다. 시편 101-102편은 포로 귀환을 예견한다. 시편 103-104편에서는 구속과 창조를 나란히 배열한다. 시편 103편은 포로 귀환을 노래하고 있으며, 시편 104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여호와와 “새롭게 하심(죽음과 생명)”을 통해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믿음의 큰 위기인 포로 상황을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시편 4권의 핵심 메시지이다. 시편 105-107편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신실하게 헤세드를 베풀셨음에 초점을 맞춘다. 시편 107:43은 여호와와 헤세드를 깨달으라고 권면하면서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 서술을 마친다. 시편 105-107편의 역사는 ‘죽음을 거쳐 생명으로 새롭게 된’ 포로 후기 세대에게 여호와와 헤세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열조들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언약 관계에 합당한 순종의 새 세대를 열어 가기를 권면하고 있다. 시편 4권의 의도는 포로 상황이라는 큰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시편 전체의 구성의 중심이라고 하는 4권의 메시지를 이해하므로 시편 전체를 일괄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주요어>

시편 4권, 전체론적 관점, 여호와와 영원한 왕권, 인간의 유한성, 포로의 의미

<Key words>

Book IV of the Psalter, a holistic view, Yahweh's eternal kingship, human frailty, the meaning of the exile

* 접수일 2009년 8월 26일, 수정일 2009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25일

참고문헌

- 김형준, “시편 제4권의 구조와 신학적 관점,”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17 (2001), 5-18.
- 박경철, “한 권으로 읽는 시편,” 김영일 외 17인 편,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김이곤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 한들 출판사, 2006, 11-57.
- Berlin, Adele, “The Wisdom of Creation in Psalm 104,” Ronald L. Troxel, Kelvin G. Friebel, and Dennis R. Magary, eds., *Seeking out the Wisdom of the Ancients: Essays Offered to Honor Michael V. Fox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5.
- Clark, Gordon R, *The Word Hesel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57, Sheffield: JSOT, 1993.
- DeClaissé-Walford, Nancy L., *Reading from the Beginning: The Shaping of the Hebrew Psalms*,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 Howard, David M. Jr., *The Structure of Psalms 93-100*, BJS 5,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 Kirkpatrick, A. F., *The Book of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
- Kraus, Hans-Joachim., *Psalms 60-150: A Commentary*, H. C. Oswald, tran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 McCann, J. C. Jr., “The Book of Psalm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L. E. Keck, et al., eds., *1 & 2 Maccabees; Introduction to Hebrew Poetry; Job; Psalms, The New Interpreter’s Bible* 4, Nashville: Abingdon, 1996, 639-1280.
- Schibler, Daniel., “קָוָה,”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892-896.
- Tate, Marvin E., *Psalms 51-100*, David A. Hubbard and Glenn W. Barker, eds., WBC 20, Dallas: Word Books, 1990.
- Verhoef, Pieter A., “קָוָה,” Willem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30-37.

Wilson, Gerald H., "Shaping the Psalter: A Consideration of Editorial Linkage in the Book of Psalms," J. Clinton McCann, ed., *The Shape and Shaping of the Psalter*, JSOTSup 15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3.

Wilson, Gerald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 76, Chico, Calif.: Scholars, 1985.

<초록>

시편의 구성적 접근을 통한 시편 제4권의 이해

문은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박사, 구약학)

이 소고는 전체론적 관점으로 시편 4권의 시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들의 상관성과 각 시의 위치에 따른 기능, 시편 4권의 전체적인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선언하는 시편 89편에 뒤이어 시편 90편은 서론으로 앞으로 4권에서 전개될 주제들을 소개하며 4권의 역사적 배경이 포로기라고 제시한다. 시편 90-92, 94편은 포로 상황에 관련하여 인간의 유한성과 여호와의 영원한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는 시편 93, 95-100편은 여호와의 왕권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포로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심판하여 그의 통치를 땅 끝까지 알릴 것을 말한다. 시편 101-102편은 포로 귀환을 예견한다. 시편 103-104편은 구속과 창조를 나란히 배열한다. 시편 103편은 포로 귀환을 노래하고 있으며, 시편 104편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여호와의 “새롭게 하심(죽음과 생명)”으로 포로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믿음의 큰 위기인 포로 상황을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시편 4권의 핵심 메시지이다. 시편 105-107편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신실하게 헤세드(חֶסֶד)를 베푸셨음에 초점을 맞춘다. 시편 107:43은 여호와의 헤세드를 깨달으라고 권면하면서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 서술을 마친다. 시편

105-107편의 역사는 ‘죽음을 거쳐 생명으로 새롭게 된’ 포로 후기 세대에게 여호와의 헤세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열조들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언약 관계에 합당한 순종의 새 세대를 열어 가기를 권면하고 있다. 시편 4권의 의도는 포로 상황이라는 큰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Abstract>

A Compositional Approach to Book IV of the Psalter

Dr. Eunmee Moon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This study aims to read the psalms(90-106) of Book IV in the Psalter with a holistic view. For understanding Book IV as a coherent whol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essage and function of each psalm in the relation of the neighboring psalms, and for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whole Book. In succession to Psalm 89 dealing with the failure of the Davidic dynasty, Psalm 90, as an introduction to Book IV, not only introduces various themes developed in the Book, but also provides the following psalms with the historical context of exile. Psalms 90-92 and 94 disclose the themes of human frailty in contrast to Yahweh's eternal kingship in relation to the exilic situation. Psalms 93 and 95-100, the Yahweh-kingship psalms, manifest that the affirmation of Yahweh's kingship is grounded on creation, and that his kingship is to attested through salvation of his people and judgment on the nations. Psalms 101-102 anticipate the return from exile. Psalms 103-104, as twin psalms, each focus Yahweh's kingship through salvation in history and

through creation. Psalm 103 celebrates the deliverance of Yahweh, that is, the return from exile, and Psalm 104 manifests the meaning of the exile through ‘the process of renewal’-death and life. Both psalms help the people of Israel overcome the exile, the major crisis in their faith. That is the purpose of Book IV. Thus, Psalms 103 and 104 function as a pivot in understanding the Book. Psalms 105-107 apply ‘the way of renewal’ to Israel’s history. This history emphasizes Yahweh’s **הסר** comparing Yahweh’s faithfulness to Israel’s faithlessness in the framework of the covenant relationship. The purpose of history is to advise the post-exilic community to open a new generation of obedience proper to the covenant relationship, not to repeat the history of disobedience like their former generations.